

대구시의회, 집행부 몰아치기

“집행부 답변 불성실하다” 정회 소동
“시장·부시장 출석토록 하겠다” 맹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운원)가 4일 2006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삼아 정회를 하는 등 집행부를 거세게 몰아부쳤다.

특히 범안로(범물~안심간 도로) 용역업체의 미선정과 관련해, 범안로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동희·이경호의원은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으며 박돈규 의원은 범안로 관련 자료전체와 병목·혼잡도로에 대한 대책 방안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답변 자세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운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속개를 하면서 “불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면 시장과 부시장을 오도록(예결위에)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며 보다 성의있는 답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희의원= 범안로 용역업체 선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업체 선정이 미뤄져 특위활동이 위축돼 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범안로 특위)’는 ?
범안로(범물~안심간)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정밀하게 조사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무료화도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올해 1월 구성돼 오는 7월말까지 활동한다. 이 도로는 지난 2002년 9월 완공됐으나 시가 해마다 민간업체에 33억~121억 원의 적자 보전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범안로 용역업체 선정 ‘미적’...시민지갑 터는 고통路”

“산림녹지 1억 불용처리...미처리 상황 보고하라” 질타

변경 기획예산처 공고문을 보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 편성하고 지출해야 하지만 예산 편성 안했다. 환수금액은 대구시가 예산으로 잡고, 다시 지출했다. 이는 회계조항 전혀 무시하는 것이다.

김영식의원= 하이브리드차 구입 여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소형차라 안되고 달성군은

예산 확보 안된다. 설화동 월배국도 예산자체가 불용처리됐다. 그런데 예산을 추가신청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경호의원= 범안로 용역 업체 선정을 수의 계약으로 해도 나타나지 않는다. 범안로의 통행량은 당초 26%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따라 올해 87억원, 내년에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

돼야 한다. 범안로는 용역업체가 만나올 정도로 뜨거운 감자. 특위(범안로)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민자유치사업 도로가 서민지갑 털어먹고 고통도로로 둔갑하고 있다.

서중현의원= 도시주택사업 건의서 봤나. 상정돼 있는 조례에 낙후된 지역 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평균층수 15층으로 층수 완화 조치했는데도 낙후지역 재건축사업이 부진하다.

박돈규의원= 과연 의회를 제대로 인정하고 일하나. 확인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산림녹지 관계에서 1억을 불용처리 했다. 4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결과 답변 사항이 뭐가 있나 말해라. 미처리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라. 환경녹지국 관련된 일 중에서 의회 요구사항 못하고 있는 것은 뭐가.

서중현의원= 건설방재국장은 기본자세가 안돼 있다. 조심하세요. 방금 그 질의를 의원으로서 담당 질문하는 자리에서 그 자세가 뭐냐. 훈격조 얘기를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고 있다. 이해가 안간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